

근대전환기 우화체 서사의 특질 연구¹⁾

문한별(선문대)

〈목 차〉

- | | |
|------------------------------|------------------------------|
| 1. 문제제기 | 3. 근대전환기 우화체 서사의 매체별 차이와 유사성 |
| 2. 근대전환기 우화체 서사의 전통 서사 수용 양상 | 4. 근대전환기 서사의 우화체 수용 원인과 효과 |

1. 문제제기

최근 근대전환기 서사 문학에 대한 연구는 신소설과 애국계몽소설, 번역 번안 서사에 대한 고찰을 넘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근대 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인자로서 근대전환기 단형서사의 존재는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1890년대부터 1910년대 사이에 신문과 학회지 등에 수록된 단형 서사는 짧은 지면 분량 속에 허구적인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서사가 빈약했다고 판단되었던 시기에 한국 서사 문학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단형서사라는 명칭은 양식적 특수성을 일부만 가져온 임시적인 명명에 불과하다. 분량의 길이에만 특징이 집중되어있는 이 서사들은 사실 그

1)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5539)

안을 살펴보면 서사의 구조와 서술 방법에 차이가 크며, 전통 서사를 수용한 경우와 서구의 서사를 축약하여 번역하거나 변안한 경우도 혼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형서사를 서술 방법으로 구분하면 토론택체와 문답체, 연설체, 우화체, 일대기체, 장면중심체, 몽유록체 등이 다각도로 섞여있다.²⁾

이 같이 복잡하게 혼재된 서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단형서사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상당 부분 뭉뚱그려진 채 설명되어왔다. 신소설, 더 나아가 근대 초기 소설에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서술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임에도 서로 다른 형식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서사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수용 관계를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³⁾

이 같은 시각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형서사의 다양한 서술 방법을 미시적으로 고찰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형서사 중에 전통 서사의 서술 방법이나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근대소설에 전통 서사 양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전통 문학 및 산문에서 사용되고 있던 서술 방법이 근대전환기를 거쳐 신소설, 더 나아가 근대소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한다면, 근대소설의 형성에 한국 전통 서사 문학이 발전의 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형 서사문학 가운데 서구의 서사를 수용하거나 변용한 경우를 살펴본다면 서구 문학이 한국 근대 서사문학에 미친 영향 관계를 양식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용과 배제, 혼재와 변용이라는 근대전환기의 복잡다기한 성격을 구명함으로써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근대전환기 단형서사 가운데 우화체가 사용된 작품들을 망라하여 서사의 양식적 특질과 수록된 매체와 서사와의 관계, 전통 서사와의 관련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가 우화체 서사에 주

2) 문한별,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20, 한국근대문학회, 2009.10, 183-210면.

3) 단형서사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 시작된 것은 아래의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서울출판사, 1997.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목한 이유는 이 서술 방법이 한국 전통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며, 우화체 단형서사가 우화체 신소설은 물론 우화체 근대소설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우화체는 일반적으로 동식물이나 무생물 등을 인격화하여 서사의 인물로 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 방법을 의미한다. 동양의 전통 문학에서는 한문 단편소설은 물론 가전체 문학에서도 자주 사용되었으며, 비인격 대상을 인격화한다는 점에서 비유와 알레고리를 만들어내는 서술 방법이라 할 수 있다.⁴⁾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방법이고, 비인격 대상을 인격화한다는 점에서 우화체는 다른 서술 방법보다 근본적으로 허구적 성격을 지닌다. 전근대의 소설 양식이 내용상의 허구를 이데올로기라는 외적인 틀을 통하여 이야기의 허구성을 담론적 사실성으로 포장하였고, 근대소설은 이와는 반대로 내적 허구성은 전제된 상태에서 이야기의 사실성을 구현함으로써 예술적 장르로서 독립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우화체는 전 근대 소설이나 서사 문학에서는 필연적으로 배척되어야만 할 빙공착영(憑空捉影)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서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 문학에서 우화체의 사용은 결코 비판을 받지도 배척당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식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 및 수용되었으며, 우화체가 사용된 작품 수도 상당수이다.⁵⁾ 이 같은 이중적인 이유는 이 서술 방법의 어

4) 우화체와 우의체는 특징적 성격에서 유사한 교집합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구분되어 사용해야 한다. 우화체는 인물을 만들 때 비인격 대상을 인격화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성격을 빗대어 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우의체는 서사 내용에 있어서 말하려는 것을 비유나 돌려 말하기를 통해 숨겨두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의적 방법이 사용된 우화체 서사가 있을 수 있고, 우화가 사용되지 않은 우의체 서사도 있을 수 있다.

5) 근대전환기 우화체 서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우화체 신소설과 일부 신문에 수록된 단형서사에만 집중되어있었다.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 수신 교과서의 우화 텍스트의 변화 양상』, 『우리말글』55, 우리말글학회, 2012, 243-266면.

김영택, 『개화기 우화소설에 나타난 풍자성』, 『현대문학이론연구』7,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1-18면.

김재환, 『개화기의 동물 우언소설』, 『동의어문논집』6, 동의대학교, 1993, 225-263면.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과 우언』, 『동양학』3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08, 1-27면.

면 성격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고는 우화체가 허구적 성격을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근대는 물론 근대전환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가 앞에서 전제한 근대전환기 우화체 서사를 고찰하기 위해 접근할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대전환기 단형서사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 문학 양식 가운데, 근대전환기의 우화체 서사와 가장 많이 닮아있는 것을 추출하여, 그 서술 방법과 양식적 성격을 살펴본다. 둘째, 근대전환기 신문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와 정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당대 학회 및 협회의 기관지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 신소설 가운데 우화체가 사용된 작품들을 망라하여 그 작품들의 성격을 내용과 서술 방법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셋째, 신문과 학회지, 단행본 등을 구분하여 각 단형서사가 수록된 매체의 성격을 살피고 이것이 우화체 서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근대전환기 우화체 서사의 전통 서사 수용 양상

근대전환기 우화체 단형서사와 전통 서사의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근대전환기에 발표된 단형서사의 대표적인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근대전환기 단형서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확인된 것은 이 서사 양식이 저자의 자기주장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근대적 산문 양식 가운데 논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영민이 『한국현대소설사』에서 단형서사 양식을 ‘서사적 논설’, ‘논설적 서사’로 구분하여 신소설 및 근대소설의 전사로서 설명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신문의 ‘잡보’, ‘논설’, ‘소설’란 등을 통해 발표된 단형서사는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개념의 소설에 가깝기보다는 저자의 주장을 드러내는 논설적 용도로 활용된 것이 많았다.

논설적 성격의 글이라는 판단은 전적으로 근대적 산문 양식 개념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를 전통 문학의 양식적 측면에 비교해본다면 이는 저자의 주장을 드러내는 의론(議論)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논설’과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설(說)’이라는 용어는 근대적 개념의 소설이 정

립되기 이전에는 주장을 드러내는 산문 양식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연계성은 충분히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근대적 소설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인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번역어로서의 양식적 개념인 ‘소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통 문학의 서사 양식인 ‘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흔적을 단형서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단형서사가 가지고 있는 논설적 성격이 신문의 ‘논설’이나 ‘소설’란에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전통 서사 양식 가운데 ‘설’ 문학은 어떤 성격을 지닌 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유협의 『문심조룡』에는 ‘설’ 양식이 지닌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설’ 양식은 ‘논(論)’ 양식의 하위 부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시비를 정확히 판별하는 데에 있고, 현상을 구명하고, 무형한 것을 추구한 데 있으며, 단단한 것을 뚫어서 통로를 구한 데 있으며, 깊은 못에 낚시를 드리워 궁극을 끌어내”⁶⁾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설’ 문학은 시비와 현상을 구명하는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문학에서 ‘설’은 “자신의 의사를 좀 더 자세하고 여유 있게 표현하는 유연한”⁷⁾ 양식으로 설명한다. 이는 보다 직접적인 주장을 드러내는 양식인 ‘논(論)’, ‘의(議)’, ‘평(評)’보다 유연한 양식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설’이 지닌 이 같은 양식적 성격은 이 문학 양식이 유연하게 자기주장을 드러내는 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통 문학에서 설 양식은 주제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물’, ‘식물’, ‘사물’, ‘인사’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서술 기법에서도 문답체와 장면중심 서술, 일대기적 서술, 몽유록체와 기행체, 우화체의 사용 등이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 유연함을 드러낸다.

이 같은 점을 살펴보았을 때, 근대전환기 단형서사 양식과 전통 문학 양식과 가장 닮아있는 것은 서술 방법과 분량, 목적성의 측면에서 ‘설’ 양식이라 할 수 있다.⁸⁾ 특히 본고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우화체 단형서사의 성

6) 유협, 『문심조룡(文心彫龍)』, ‘論說’ 第十八.

7) 이종찬, 『한문학개론』, 이우출판사, 1981, 223면.

8) ‘설’ 문학과 단형서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격을 고려해볼 때, 우화체가 활용된 ‘설’ 문학 작품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통 문학 양식 가운데, 근대전환기 우화체 단형서사와 닮아있는 ‘설’ 문학 작품은 어떤 예가 있는가.⁹⁾ 다음의 대비적인 예를 제시한다.

① 동쪽 집에 반 이랑 가령의 웅덩이가 있어 여러 마리의 오리가 살고 있었다. 기울어진 언덕과 무너진 섬돌을 편한 집으로 삼고, 초목과 잠목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숲은 좋은 그늘이 되어 있으며, 장구벌레와 개와 지렁이는 맛있고 연한 음식이 되었다. 깊은 진흙과 흐린 물결을 한가로이 노니는 곳으로 삼고서 스스로 일컫기를,

“연못의 안팎에 떼 지어 서 있는 것들과 어지럽게 심어져 있는 것들은 모두 내 차지다.”라고 하였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뜻에 차지 않는 것이 없으며, 서로 목을 비비고 날개를 가지런히 하고 서로 기뻐하고 놀라며 스스로 쾌하게 지나나, 뱀새와 참새들이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꺾꺾 웃었다. ~ 중략 ~

슬프구나. 세상의 높은 벼슬과 부유함도 어느 것이 웅덩이의 더러움이 아니겠는가? 나아가고 물러가며 이기고 지는 것도 어느 것이 거위와 오리 지혜가 아니겠는가? 또한 장차에는 얻음도 없고 잃음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살피어 짓는 것이다.¹⁰⁾

② 동방에 위인도라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천년 묵은 여호 하나가 있어서 환술이 괴교한지라 어엿썩 계집의 모양으로 환형하고 인류 중에 나서 본즉 방탕한 즈데들은 절타가인을 맞는드시 정신이 아득하고 안정이 희미하여 각기 호로사밤식을 절련하라고 좌첨우고하며 서로 눈스죽들을 흐더라 남방 돌우물 골에 쏘 미술관 하나가 있어서 요물 빗최는 거울을 만든디 빅져 바탕에 흑연으로 장식하고 황모로 런마식지 흘 썬더러 유명한 미술국이 편리한 기계로 호로사밤 동안에 만여 개식이나 제조하야 동서양으로 날마다 슈출하더라 그 늙은 여호가 공교한 턴도를 부리며 인간으로 황형하 나 능히 그 전신을 아는 자 | 업더니 요물 빗최는 거울을 흐번 디하미 절식

문한별, 『독립신문수록 단형 서사와 ‘설(說)’ 문학의 연계성 고찰』,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2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03, 417-439면.

9) ‘설’ 문학 작품의 해석은 『한국 설 문학선』(양현승 역주, 월인, 2004)를 따른다.

10) 오숙(1592-1634), 『아설(鵝說)』.

으로 어엿부던 모양이 간 디 업고 다리스시에 아홉 소리와 코 밋헤 쏘죽호
주둥이와 전신에 노랑 털만 잇술 뿐 아니라 속에는 시랑긋호 먹음이 그득호
더라 ~ 중략 ~

여호여 여호여 보비거울을 원망치 말고 네 마음을 곳치며 보비거울을 썩앗
지 말고 네 형용을 변홀지어다 원망호는 괴상과 썩앗는 모양까지 그 거울
속에 보이느니 음적코져 호는 거시 도로혀 로출되느니라 무엇에 유익함이
잇스리오.¹¹⁾

①번 예시문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오숙’의 ‘설’ 작품이고, ②번 예시문은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0일자 신문의 ‘시사평론’란에 수록된 단형서사 작
품이다. 이 두 글은 모두 서술 방법으로 우화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자의
자기주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설’ 문학에 해당하는 ①번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목적
성이 ②번 단형서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우선 이 두 작품의
구조는 모두 2단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앞부분은 우화체를 활용한 허구
적인 이야기이며, 뒷부분은 우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적 측면에 해당
하는 논평이다. ①번 ‘설’ 작품에서는 오리와 거위의 우화를 통하여 권력을 가
진 자와 빼앗긴 자 모두 지저분한 진흙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을 원망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②번 단형서사 작품에서는 구미호와 인간 사이의
우화를 통하여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그것을 꿰뚫어보는 시각에 대해서
만 불평하는 자를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인 유사성과 우화를 통한 주제 전달이라는 목적성의 공통점
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화체 ‘설’ 양식이 보여주는 비유와 비판의 기능은 근
대전환기의 우화체 단형서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화체를 활용한 설 문학 작품 가운데, 조선 초기 문인인 ‘최충성
(1458-1491)’의 『잡설(雜說)』¹²⁾이나 조선 후기 ‘홍우원(1605-1687)’의 『노마
설(老馬說)』¹³⁾, ‘이하곤(1667-1724)’의 『미호설(媚狐說)』¹⁴⁾ 등이 보여주는 우

11) 대한매일신보, 시사평론, 1909.07.20.

12) 물웅덩이에 사는 미물의 한탄을 통해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해 선비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13) 늙어서 버림 받은 말의 한탄과 이를 통해 반성하는 주인의 심경을 다룬 내용.

14)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여우의 속성을 비판하는 내용.

화체의 사용과 비유를 통한 주장과 비판의 성격은 근대전환기 우화체 단형서사가 보여주는 예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화체를 사용한 ‘설’ 문학 작품은 대부분 2단 구성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선 우화를 통해 비유적으로 비판할 내용을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바를 논평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단형서사 역시 유사한데, 먼저 우화를 통해 문제적인 내용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저자의 논평을 통해 주장과 비판을 제시하는 형식인 것이다.

이 같은 공통점은 전통 문학 양식인 ‘설’이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다는 목적성이 강하다는 측면이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논설’, ‘소설’ 등의 신문의 항목에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화체라는 허구적으로 빗대어 말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두 양식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근대전환기 우화체 서사의 매체별 차이와 유사성

그렇다면 전통 문학 양식과 우화체 단형서사 사이의 유사성은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각 매체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면서 수용되고 있는가. 이번 장은 신문과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를 통하여 근대전환기의 서로 다른 매체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우화체 서사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3.1. 서술 방법의 측면

근대전환기 우화체 단형서사는 신문과 학회지 두 매체에 집중되어 수록되었다. 근대전환기 신문에 수록된 우화체 서사는 줄잡아 30여 편이 넘으며, 신문 수록 단형서사 전체를 환산하였을 때 단형서사는 300여 편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화체 서사는 비중에서도 상당하다. 이에 비하여 근대전환기 학회지에 수록된 서사체 사용 글은 대표적인 12종만 확인하더라도 220편 이상

이다.¹⁵⁾ 그러나 근대전환기 신문에 비하여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 서사는 번역물¹⁶⁾을 제외하고 9편에 불과하여 신문에 비해 확연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단형서사들의 서술 방식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다음의 예시를 통하여 살펴해보도록 한다. 먼저 우화체를 사용하면서 문답체를 함께 활용하는 형식의 글이다.

- ① 물식 ㅎ나이 거산대천에 두루 다니다가 두레 심에 드러나 개고리를 보고 ㅎ는 말이 그덕가 적막한 우물 밋히 잇서 세상이 엇더흠을 아지 못ㅎ니 실로 ㅎ심ㅎ고 민망ㅎ도다 나를 좇차 우물 맞게 나아가면 턴디의 광활흠과 일월의 명랑흠과 산천의 슈려흠과 화초의 번성흠을 력력히 구경ㅎ 거시오 문건의 고루흠을 면ㅎ리니 그덕의 싱각이 엇더ㅎ뇨
개고리 디답ㅎ니 ㅎ의 말슴이 허황ㅎ고 오활ㅎ도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여러 세디를 이 곳에 사라 력력도 만히 ㅎ고 풍상도 격겨시되 일직이 턴디가 적거늘 ㅎ은 엇지ㅎ여 허탄ㅎ 말슴으로 인심을 요동케 ㅎ나뇨 나는 즈즌손 손이 이 곳에 싱장ㅎ여 선조의 기업과 명현의 톨법을 직히여 문건도 녀넉ㅎ고 ㅎ랑이 즈족ㅎ니 ㅎ의 말을 드를 리도 업고 밋을 것도 업노라!¹⁷⁾
- ② 옛적에 一鼠가 一子를 養成ㅎ고 婚事를 求ㅎ시 至高無低ㅎ 地位를 차차 相婚코자 ㅎ여 太陽에 을나가 請婚ㅎ거날 太陽이 答ㅎ되
네가 비록 至高ㅎ다 ㅎ나 雲이 遮蔽ㅎ면 光彩를 不放ㅎ니 我보다 雲이 愈흠 듯ㅎ니 雲과 請昏흠이 可라 ㅎ더라.
鼠가 聽罷에 不得已ㅎ야 雲의게 차자가 請昏ㅎ디 雲이 亦曰ㅎ되
네가 비록 勢力과 種類가 多大ㅎ다 ㅎ나 但 風力所及에는 散盡無餘ㅎ니 我보다 風이 愈흠 듯ㅎ니 風과 請昏흠이 可ㅎ다 ㅎ더라.
鼠가 又 不得已ㅎ야 風의게 請婚ㅎ디 風이 答ㅎ되 네가 氣力을 一張ㅎ면 江山을 可이 掀撼ㅎ며 宇宙를 可히 震盪ㅎ며 沙石을 可히 揚ㅎ지오 樹屋을 可히 拔ㅎ지나 但 城壁을 遇ㅎ면 可爲ㅎ 力이 無ㅎ니 城壁과 請昏흠이 可라 ㅎ더라.
鼠가 又 不得已ㅎ야 城壁에 가 請婚ㅎ디 城壁이 答ㅎ되 네가 비록 堅固ㅎ나

15) 문한별, 『한국 근대소설 양식론』, 태학사, 2010, 378면.

16) ‘창창생’의 ‘이습스우화초역’(『대한유학생회화보』1호, 1907.03), ‘지나(支那) 에시객(哀時客)’의 ‘동물담’(『서우』3호, 1907.02), ‘양계초(梁啓超)’의 ‘동물담’(『대한협회회보』1호, 1908.04).

17) 조선크리스도인회보, 『द्य와문답』, 1897.5.26, 부분.

但 君輩의 穿窬를 遇하면 毀壤을 恒常 當하니 君輩를 차차 相婚함이 좃타하
더라.¹⁸⁾

문답체는 근대전환기 단형서사에 자주 활용되는 서술 방법 중에 하나이며, 위의 두 글에는 우화체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문답체¹⁹⁾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의 양이 동일할 경우 대화체로 분류하기도 한다.

근대전환기 신문에 수록된 우화체이자 문답체인 ①번 예문은 우물 안 개구리를 등장시켜 정보와 개화에 둔감한 당시 조선 백성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화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쉽게 이해를 시키는 것은 물론 비유를 통한 알레고리의 효과도 얻어내고 있다. 이 글에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지한 인물은 인간이며, 무지한 인물은 인격화된 개구리인데, 둘 사이에는 근대에 대한 지식과 식견의 차이가 대비적으로 드러난다.

②번 예문은 근대전환기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문답체 서사인데, 이 글에는 인격화된 쥐를 등장시켜 분수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높고 고귀하기만 바라는 인물을 우화를 통한 알레고리를 만들어 비판한다. 다만 첫 예문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화 기법이 만들어낸 알레고리의 효과가 당대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훈담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근대전환기 신문에 수록된 단형서사 가운데에는 문답체가 활용된 경우가 50편이 넘을 정도로 많다. 이는 당대가 문답을 통해 비판과 풍자는 물론 정보의 다소(多少) 차이를 통하여 전달하려는 주제의식이 강렬했기 때문이다. 소위 개화와 수구 혹은 개혁과 완고로 대별되는 두 세계관의 대립을 문답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침병의 역할을 하고 있던 신문의 입장에서는 계몽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근대전환기 신문에 문답체와 우화체가 결합된 서사가 많다는 점은 이 같은 서술 방식의 목적론적 효율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쉽게 비유를 통해 당대적 가치를 전달하기에 문답과 우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지한 독자들

18) 지언자, 『서혼(鼠婚)』, 『태극학보』24호, 1908.09, 56면.

19) 『논어』나 『맹자』 등과 같이 경전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승에게 제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은 ‘문답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대전환기의 서술 방식인 ‘문답체’와 궤를 같이한다.

을 일깨우는 데에 효과적인 수박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토론체의 경우도 유사한데, 토론체는 문답체에 비해 비교적 대등한 조건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 사이의 대화가 서사를 이끌어간다. 신문에 수록된 토론체와 우화체가 함께 사용된 글로는 다음의 ①번 예문을 볼 수 있다.

① 여호가 그제야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리 탄식하더니 소리를 크게 하여 고양이를 호령하여 굴으되 너의 미련함이 엇지 이곳치 심하노 대더 만물지중에 가장 신령하며 가장 귀한 자는 인류라 텃디의 조화를 창조하며 상대를 대표하여 여러 중생을 관리하는 도덕이 있스니 그 지혜와 지도가 우리 짐승 동포에게 비교하면 천척 백가 나을 거시오 쏘 동양 반도에 대한 인종은 실노 즈상하고 명민한 우등 인종이 아니리오마는 ~중략~
고양이가 이 말을 듣고 발연대노하여 굴으되 네가 인류의 형위를 인증하여 나를 쏘이고져 하나 이것은 그 첫째만 알고 둘째는 아지 못하는 것이로다 대더 인류가 금슈보다 신령하고 귀하다 흠은 도덕과 지혜가 금슈보담 탁월한 식들이어늘 현금 세계의 인류의 형위를 불작시면 즈기의 관직을 도득하기 위하여 임군을 속이고 나라를 쑤는 자도 있스며 즈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군을 속이고 나라를 쑤는 제도 있고 즈기의 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포를 잔학하는 자가 비비우지하니²⁰⁾ ~중략~

② 一日에 南山洞 生員임택 門下로 過호시 一崇古生과 一開化生이 相對하여 酬酌하는 言論이 如左하더라.

(崇古生) 이 曰 今日 所謂 開化라고 自處하는 者덜이 속기화는 아니하고 形式上 開化로 斷髮黑服하는 것 보면 눈골이 사나와

(開化生) 이 曰 我의 所見의는 斷髮이며 黑服이 人道에 關係업는 듯호 저게 누은 狗를 두고 論하여도 彼에게 冕冠과 道袍를 着하더라도 彼를 狗라 稱호지오 決코 人이라고 稱호 수는 無호지라 然호즉 人에 人됨이 人道를 實行함에 在호 者ㅣ 아닌가. 萬一 斷髮黑服호 者라도 人道가 有호면 人이 될지오 設或髻가 三尺이 高호고 袖가 一丈이 廣호지라도 人道가 缺호면 禽獸가 될지니 吾는 是故로 斷髮不斷髮과 黑服不黑服에 關係가 無호다 호노라.

(崇古生) 이 曰 近來 開化者들은 입살이 알바서 말工夫는 잘호는 貌樣일세

20) 대한매일신보, 론설, 1908.3.27.

服堯之服^{ᄃᆞ}며 行堯之行^{ᄃᆞ}면 是堯而已矣^오 服桀之服^{ᄃᆞ}며 行桀之行^{ᄃᆞ}면 是桀而已矣^라 ᄃᆞ얏스니 爲先斷髮黑服^{ᄃᆞ} 者를 무삼 正當^{ᄃᆞ} 人道가 잇다고 認定^{ᄃᆞ}엿줄 것이 잇는가²¹⁾

토론체는 문답체와는 달리 대등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 사이의 입장 차이가 생겨난다. 정보의 양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신문에 수록된 토론-우화체 단형서사인 ①번 예문에서 등장하는 고양이를 설득하고 있는 여우는 당시 개화라는 명분을 통해 국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외세를 표상하고 있으며, 고양이는 이 같은 주장을 비판적으로 논박하는 애국 계몽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근대전환기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는 토론의 서술 방법을 추가로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다.

신문에 수록된 토론체 서사와 비교하기 위하여 제시한 학회지 수록 ②번 서사는 토론체로만 서사가 진행되고 있는 예이다. 이 글은 ‘송고생’과 ‘개화생’이라는 명명을 통해서 개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인물들의 주장은 당시 개화와 계몽을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준다. 국권 상실기 이전이라는 당대적 성격은 ①번 예문에서는 여우를 비판하는 우화적 형태로, ②번 예문에서는 ‘송고생’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주제의식을 표출시킨다.

이처럼 근대전환기 신문과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는 단독으로 사용되어 저자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비유적이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있지만 문답과 토론이라는 서술 방식과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대립된 가치를 모두 보여주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형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화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돌려 말하기의 형식이 비유를 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토론체와 문답체는 인격화된 동물 등의 목소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하게 가치가 대립되는 조건을 보여줌으로써 우화체가 가진 간접적 진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1) 지언자, 「담총」, 『서북학회월보』18호, 1909.12, 44-45면.

3.2. 수용 담론과 주제적 목적성의 측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전환기 우화체 단형서사는 신문과 학회지, 단행본 등에 분산되어 수록되었으며, 서술 기법 상으로는 일반적인 서술 중심의 우화는 물론 문답체와 토론체 등과 결합하여 저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각 매체별에 고르게 분산되어 수록된 각 우화체 단형서사는 언론 매체의 성격은 물론 매체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성을 반영하는 데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장에서는 각 매체별 우화체 서사의 주제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특수한 서술 방법이 활용된 문학 양식이 어떤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신문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는 현재 확인된 것이 37편이며, 신문별로 보자면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3편, 『그리스도신문』에 1편, 『독립신문』에 6편, 『협성회회보』에 1편, 『매일신보』에 4편, 『제국신문』에 7편, 『대한매일신보』에 6편, 『경향신문』에 8편, 『대한민보』에 1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단형서사에 우화체를 자주 사용하는 신문들이 확인되는데,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경향신문』 등이 그러하다.

우선 『독립신문』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에는 1898년 2월 5일 신문에 「엇던 유지각흔 친구에 글을」과 같은 해 3월 29일 신문에 「엇던 유지각흔 친구가」, 7월 20일에는 「장수와 난쟁이」라는 글이, 1899년 6월 12일에는 「개고리도 잇쇼」, 7월 7일에는 「일장춘몽」이, 11월 24일에는 「일전에 서양 어느 친구가」 등이 있다.

「엇던 유지각흔 친구에 글을」은 백로와 계의 우화를 통하여 간교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는 물고기를 자각시키는 계의 존재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우화 뒤에 붙어있는 논평을 통하여 그 주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계와 같이 현실을 직시하고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엇던 유지각흔 친구가」라는 단형서사는 소나무와 이름 모를 외래 나무,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독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 역시 논평을 통하여 이 땅을 병들게 하는 외래 나무와 독풀을 몰아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외세의 압력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을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고리도 잇쇼」라는 우화체 단형서사는 사냥꾼을 피해 도망하던 토끼가 자신들을 보며 도망가는 개구리를 비웃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저자는 논평을 통해 자신의 현실은 직시하지 못하고 남이나 비웃는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백성들에게 토끼를 뛰어넘는 호랑이와 사자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독립신문』에 수록된 우화체 서사는 당대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우화에 비유적으로 감추어진 주제의식을 논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비판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제국신문』 1899년 11월 29일자에 수록된 「사회 상에 이상한 친구가 있스니」라는 우화체 단형서사는 돈을 인격화하여 재물을 올바르게 축적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명예 있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도덕적인 교훈담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1900년 6월 28일자 신문에 수록된 「근일 일기는 티한헛티」라는 글은 사냥꾼에게 쫓기어 도망하던 사슴이 초부의 도움으로 살아나지만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남의 나라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빼앗으려는 현실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또한 1901년 3월 12일자 신문에 수록된 「서양 사름 넷말에 굴으티」라는 우화체 단형서사는 병든 사자를 구호한다고 하면서 서로 질시와 모함을 일삼는 이리와 여우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 사이의 신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우화체 서사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두 신문은 동일한 우화체 서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신문』이 우화 뒤에 붙은 논평을 통하여 보다 당대적이고 시사적인 내용으로 우화의 내용을 해석하도록 유도한다면, 『제국신문』은 논평의 시사성은 약화되고 상당 부분 시대와는 거리를 둔 교훈담으로 읽히도록 조직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와 『경향신문』이 각각 보여주는 특징과도 유사한데,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일자 신문에 수록된 「금슈의 말」은 인격화된 동물들이 서로를 도와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국권상실의 목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합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 26일자 신문에 수록된 「더 셔산에 히 걸치고」는 금수들의 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육강식의 시대 현실을 인격화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향신문』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인 「평과 툽기의 깃분 슈

작』(1908.5.1-8)에서 화자는 인격화된 꿩과 토끼를 통해 의병과 일본 군대와의 싸움을 양시양비론으로 비판하면서 자신들과 같이 힘없는 백성들은 양쪽 모두에게 고초를 받고 있다는 시각을 피력한다. 이는 『대한매일신보』가 우화체 단형서사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외세, 협심 동포의 맥락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소극적인 비판의 태도이다. 또한 『경향신문』에 수록된 다른 우화체 단형서사들은 『제국신문』과 유사하게 시대적 상황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화의 내용들을 논평을 통해 교훈담으로 해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보인다.

이 같은 신문별 차이는 각 언론 매체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성에 따라 유사한 우화라도 강도와 정도, 시각의 차이가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화체라는 특수한 서술 방법은 근본적으로 허구적 비유를 통하여 그 의미를 감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가 들어간 논평이 첨부됨으로써 그 목적성이 분명해지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전환기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12종의 학회지²²⁾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는 모두 9편이며, 이 가운데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은 2편, 교훈담에 해당하는 내용은 7편이다. 먼저 시사적인 내용을 다룬 우화체 단형서사 중 『태극학보』22호(1908년 6월)에 수록된 박협균(朴俠均)의 『리어(俚語)』는 개와 고양이 주인을 배반하고 집에 있는 닭을 모두 잡아먹어서 함께 망하게 된 후 아사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자는 논평에서 “主人도 自作之孽이오 고양이와 기도 亦 自手衝目이로다. 슬픈지라. 이 말을 드르미 눈물이 산산호도다. 우리 三千里疆土와 二千萬人民을 爲호야 警告할 만호도다.”라고 언급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국민들이 처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을 향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시사적 성격의 우화체 단형서사인 ‘성낙윤(成樂允)’의 『골계소설

22) 『서북학회월보』, 『대한협회월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홍학보』, 『호남학보』, 『대조선독립협회월보』,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동학회월보』, 『서우』, 『기호홍학회월보』, 『대한유학생회학보』

(滑稽小說)』(『기호홍학회월보』5호, 1908.12)에서는 인격화된 매미와 사마귀와 솔개 사이의 약육강식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교육과 배움을 통하여 이 같은 현실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는 신문 매체에 수록된 시사적 단형서사와는 다르게 교육과 계몽이라는 주제로 우화가 소급되어 해석되도록 유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저항이나 반외세의 맥락을 강조하는 신문 매체의 성격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근대전환기 학회지에 수록된 다른 7편의 우화체 단형서사들은 대부분 시대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교훈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북학회월보』16호(1909년 10월)에 수록된 『교활(狡獪)은 원성(猿猩)』은 욕심이 부른 화를 보여주며 스스로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태극학보』24호(1908.9)에 수록된 『서혼(鼠婚)』 또한 자기 분수를 지켜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전환기 신문과 학회지의 이 같은 차이는 무엇보다도 각 언론 매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자들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문 매체가 매일 변화한 정보를 일반 대중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보다 쉽게 시사적인 정보를 알리고 계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비하여 월별로 발간되는 학회지는 그 독자층이 학회의 구성원이 대부분이며, 교육이나 계몽 등의 목적성을 이미 표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자 사이의 암묵적인 일정한 공감과 공유의 측면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근대전환기 학회지는 학회의 방향성을 공감하는 일정한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발간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 대중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계몽하는 방식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문과는 달리 학회지에 포함되는 매체에는 유학생들의 동인지와 같은 성격의 것들도 상당수인데, 이 같은 특수성은 이들이 비록 근대적 지식인층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연령이나 경험 등에 있어서도 일간지의 편집자와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획득하기에는 무리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근대전환기 서사의 우화체 수용 원인과 효과

근대전환기의 단형서사들은 주로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화나 문답, 토론 등의 서술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우화체 단형서사라는 특수한 형식의 글들을 하위 갈래로 만들어냈다. 특히 신문이나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들은 상당수가 2-3단 구성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 2단 구성의 경우 우화를 먼저 제시하고 뒤에 저자의 논평을 첨가함으로써 우화가 해석되어야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었으며, 3단 구성은 우화를 듣고 전달하는 화자가 먼저 등장하여 간단한 내용 소개를 한 후 우화를 제시하고 다시 논평을 첨가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2단이든 3단 구성이든 간에, 저자의 논평이 없이 우화만 독립된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며, 논평이 반드시 첨가됨으로써 시대적, 시사적 성격을 지니도록 조직되었다.

우화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격화된 동식물이나 무생물을 등장시켜 인간의 세상을 비유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교훈과 풍자, 비판의 기능은 항상 표면적으로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숨김은 의도가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단초가 제시되어야만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알레고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저자의 목적성도 성취될 수 있다. 근대전환기 신문과 학회지라는 두 매체에 수록된 우화체 서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 부분 분명한 저자의 분명한 목적성을 전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만 신문에 수록된 서사는 보다 선명한 주제의식을 드러내었고, 학회지에 수록된 서사는 충분한 당대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교훈담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우화체 단형서사의 원류는 기실 근대전환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전통 문학 양식 가운데 ‘설’ 문학은 비유를 통하여 저자의 주장을 표출하는 2-3단 구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우화체 서술 방법도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문과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의 원류는 ‘설’ 문학과 그 고리가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우화체 단형서사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활발하게 발표된 이유는 그 전달 방식의 효율성에 기인한다. 독자들에게 설득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서술 방법이 필요했으며, 우화는 독자의 지식의 다소(多少)와는 무관하게 쉽게 읽히

고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지보다 일반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우화체가 많이 수록된 이유는 이 같은 쉽게 읽히고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신문에 수록된 우화체 서사들이 학회지에 수록된 글들에 비하여 보다 시사적인 성격을 갖게 된 이유도 유사하다. 일반 대중 독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인층 독자라는 차이는 우화체 단형서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시기 발표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황성서적업조합, 1908)이나 김필수의 『경세중』(광학서포, 1908) 등은 인격화된 등장인물들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신문과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와 상당 부분 닮아있다. 특히 신문에 수록된 단형서사 가운데에는 토론, 문답, 연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이 같은 특징은 안국선과 김필수의 작품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화체 단형서사가 근대전환기만의 양식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우화체 서술 방법은 전근대문학부터 근대전환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화체가 독자들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필연성이 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우화체 서사는 보다 시사적인 당대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근대전환기는 근대적 언론의 성장으로 보다 많은 정보와 주장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었으며, 보다 많은 독자와 접할 수 있게 된 시기이다. 단순히 계몽과 교육, 애국과 반제국 등의 맥락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우화가 가지고 있는 교훈과 교육적인 효과는 이 시기에 우화체 단형서사가 활발하게 응성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우화체 서사 역시 당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가는 충분히 알 수가 없다. 다만 근대적 언론 매체의 발달 전에는 독자가 한정되었고 우화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독(愼獨)이나 경계(警戒)의 차원에 머물렀을 것이다. 근대전환기의 우화체 서사는 그런 의미에서 신독이나 경계를 넘어선 계몽(啓蒙)과 교육(教育)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서사 양식이다.

〈참고문헌〉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출판사, 1997.
- 문한별, 『한국 근대소설 양식론』, 태학사, 2010.
- 양현승 역주, 『한국 說 문학선』, 도서출판 월인, 2004.
- 이종찬, 『한문학개론』, 이우출판사, 1981, 223면.
-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 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 수신 교과서의 우화 텍스트의 변화 양상』, 『우리말 글』55, 우리말글학회, 2012, 243-266면.
- 김영택, 『개화기 우화소설에 나타난 풍자성』, 『현대문학이론연구』7,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1-18면.
- 김재환, 『개화기의 동물 우언소설』, 『동의어문논집』6, 동의대학교, 1993, 225-263면.
- _____,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 『한국근대문학 연구』20, 한국근대문학회, 2009.10, 183-210면.
- 문한별, 『독립신문수록 단형 서사와 ‘설(說)’ 문학의 연계성 고찰』, 『한국문학 이론과비평』12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03, 417-439면.
- 손정수, 『개화기 서사의 장르적 성격』, 『상허학보』10, 상허학회, 2003, 35-59면.
-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과 우언』, 『동양학』38,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2005.08, 1-27면.

【국문초록】

근대전환기 우화체 서사는 전통 문학 양식인 ‘설’과 상당 부분 닮아있다. 본고에서는 근대전환기 우화체 서사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대 양식인 ‘설’ 문학과 비교 고찰을 우선 진행했고, 근대전환기의 각 언론 매체에 수용된 단형서사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근대전환기 단형서사 가운데 우화체가 사용된 글들을 추출하여 살펴봄으로써 매체별 특징은 물론 우화체 서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근대전환기 신문과 학회지에 수록된 우화체 단형서사는 대부분 2-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앞부분에 우화가 제시되고 뒤에 논평이 붙어있음으로써 우화를 주제의식에 맞추어 독자들이 해석하도록 유도되고 있었다. 특히 근대전환기 신문에 수록된 우화체 서사들은 학회지에 수록된 것들에 비해 시사성이 강조되었으며 그 수도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 문학에서 ‘설’이 저자 자신에 대한 경계에 집중하였다면, 근대전환기 단형서사에서는 독자들에게 대한 계몽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근대전환기, 언론매체, 서사체, 신문, 학회지, 단형서사, 대화체, 문답체, 연설체, 우화체, 우의체, 일대기체, 문학양식, 우화체 서사

【Abstracts】

A study on Allegory-Narrative of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in Korea

Moon, Han Byoul

Allegory-narrative of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has great resemblance to 'Seol'.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Seol'(a genre of traditional literature) and short narrativ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 times. In this paper, Allegory-narrative of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is highlighted to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and meaning. As the result of study, Allegory-narrative has 2-3 stage of configuration, in front of story shows allegory-fable and in the behind shows the writer's commentary. Also, Allegory-narrative in newspaper brings into focus on events of the day. Eventually, Allegory-narrative of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is made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the readers.

Key words :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media, narrative style, journal, newspaper, short narrative, dialogic style, question-answer style, speech style, fable style, allegorical style, biographical style, literature type, allegory-narrative

이 논문은 2014년 12월 2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